"지역 갈등·분열 씻겠다" 6명 출사표

■담양군수 입지자

민주당에서 5명, 무소속으로 1명이 뛰고 있다. 이정섭 전 군수가 비리 혐의 등으로 도중하차 하면서 입지자들이 일찍 몰려 들어 세 불리기 전쟁이 치열하다.

최형식 전 군수, 유창종 전 담양 부군수, 강종문·송범근 전남도의원, 최화삼 담양군의원 등은 민주당 공천을 따내기 위해 뛰고 있고,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은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된다.

최형식 전 군수는 도의원 3선· 민선 3기 군수를 거치면서 청렴성· 리더십·업무추진 능력 등을 보여줬다며 '검증된 인물론'을 내세운다. 그는 "재임 시절 개발한 죽녹원이 지역 경제의 큰 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군민들이 다시 군수를 맡아 죽녹원처럼 담양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격려하고 있다"면서 "주식회사 담양을 경영하는 경제군수가 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농업 신 산업화로 부농 실현 ▲명품 교육도시 건설 ▲세계적 관광도시 조성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이 주요 공약이다.

유창종 전 부군수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담양 부군수, 전남도 농정국장과 기획관리실장·행안부 광주 정부종합전산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쌓은 행정경험과 청렴한 이미지가 강점이다. 그는 "깨끗한 새 인물이 나서야 담양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 내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행정 노하우와 풍부한 인맥을 살려 담양을 전국 10대 부자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 육성 ▲농업 강군 육성 ▲첨단산업 육성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고 있다.

송범근 도의원은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담양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열정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담양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밑그림을 그려 놓았다"면서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 갈등과 분열이 없는 화합의 군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명품 브랜드 육성 ▲인구 유입 정책 ▲농축산물 가동 유통기반 구축 ▲관광소득 2천억 시대 ▲친서민 종합대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종문 도의원은 지역 통합과 화합, 청렴성을 강조하며 군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다. 강 도의원은 6년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농정지식과 의정경험이 돋보인다. 그는 "민선 3기 군수 선거부터 지역이 둘로 갈라져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이제는 군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후보가 군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도의원은 특용작물, 축산업 발전 정책을 통해 담양을 농업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최화삼 담양군의원(재선)과 의장을 지낸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도 8년간의 군의원 활동으로 다진 지지기반을 토대로 세 불리기에 한창이다. 그도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첫 번째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군민의 애로와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군정도 곧바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자임한다"면서 "이러한 경험과 금융전문가로서 경륜을 살려 살기 좋은 담양을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뒤 군수 출마 행보를 해왔다. 현재까지는 유일한 무소속 출마 예정자다. 명예퇴직 직후 출판기념회도 가졌다. 그는 "민선 4기 군수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이 지역에 큰 피해를 줬다"면서 "도덕성·청렴성·추진력·행정경험을 갖춘 인물이 군수가 돼야 한다"며 "담양의 농업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담양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강종문(50)	김용주(55)	송범근(58)	유창종(57)	최형식(55)	최화삼(56)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전남도의원	전 담양군 경제과장	전남도의원	전 담양부군수	전 담양군수	담양 새마을금고 이사장

前군수 도중하차…입지자들 일찌감치 '무주공산 선점' 전쟁

전직군수·공무원·지방의원 등 "농업 강군 육성" 한 목소리

①소지역주의 이번엔 극복?

②'反최형식 연대' 파괴력은

■쟁점&변수

담양군은 최형식 전 군수와 이정희·이정섭 후보가 민선 3, 4기 두 차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고소·고발사태를 빚으면서 양측을 지지한 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 있는 곳이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마다 지역화합을 제1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반목을 거듭하는 소지역 주의가 어느 정도 극복될 지 관심이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형식 전 군수에 대항하는 '반(反) 최형식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후보 단일화로 경선 판도를 확 바꿀 수 있다는 얘가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민선 3, 4기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분열이 심각하고, 지역민 갈등에 따른 후유증도 큰 만큼 이제는 지역통합을 이룰 화합형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최 전 군수에 대한 각을 세운 뒤 "일부 출마 예정자 사이에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창종 전 센터장은 최근 군수 도전을 위해 뛰던 서종한 농협 담양군지부장이 자신을 지지토록 만드는 등 다른 출마 예정자와의 연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이정섭 후보가 반 최형식 세력을 결집해 신승을 거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유 전 센터장의 후보 결집 행보가 민주당 내 경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현역 도의원 2명 군수 도전

정치신인 VS 군의원 각축전

■도의원 입지자

제1선거구(담양읍·용·월산·금성·무정면)와 2선거구(대전·수북·봉산·고서·창평·대덕·남면)에 각각 3명의 입지자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현역 도의원 2명이 모두 군수 출마를 방향을 잡은 만큼, 고지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제1선거구에는 김상희 전 담양 청죽로타리 회장과 양대수 담양군의회 의장, 박철홍 전 담양군수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이들은 당시 강종문 도의원과 3파전을 벌여 고배를 마신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각자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소외된 지역의 농축산업 발전과 사회복지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보고 싶어 광역의원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실장은 "사람이 넘쳐나는 담양, 희망이 숨 쉬는 담양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다.오는 19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양 의장은 "도의원이 되면 관광인프라 구축과 복지사업 증진에 노력해 지역발전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2선거구에서는 김동주 담양군의원과 최병환 전 담양군의원, 구상규 전 국회의원 비서관 등 3명이 도전하고 있다.

축산업과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김 군의원은 "농촌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담양을 친환경 농업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군의원은 "의정 및 농정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일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구 전 비서관은 "도의회에 진출해 농촌 문제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담양군 도의회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김상희(민·52)	담양 청죽로타리클럽 회장
	박철홍(민·50)	전 민선3기 담양군수 비서실장
	양대수(민·51)	담양군의회 의장
2	구상규(민·58)	전 이영조 국회의원 비서관
	김동주(민·53)	담양군의원
	최병환(민·63)	전 담양군의원

■ 지방선거 핫코너

주승용 "J프로젝트 행정력 낭비" 비판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당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도정은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어가면서까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J프로젝트가 그 대표적 사례라면서 5년 동안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이뤄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 발표를 보면 그 내용이 J프로젝트와 유사해 걱정이고, 이명박 정부는 J프로젝트에 눈도 안 돌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현실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금호타이어 사주 사재 출연을"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산업은행 측이 사주의 사재출연 문제가 매듭지어질 경우 이번 주라도 당장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주는 사재 출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필요"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민주·혁신 세력 간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민주·혁신 세력 간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단계 민주당 내 단일화, 2단계 야권, 재야 등 반(反) 한나라당 세력을 아우르는 과정을 거쳐 뜻을 같이하는 세력을 단일화해야 한다"며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현안을 토론하고 후보 역량을 검증하는 TV토론도 제안했다.

신태학 '자서전' 출판기념회

전남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신태학 전남교육문화포럼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자서전 '신바람 교육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신 회장의 초등학교 제자였던 민주당 대변인 출신 김유정 국회의원과 전남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